

문화특종

부안복지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5건 선정

부안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4건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이 선정돼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4건(약사천구백만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일천이백만원)에 먼저 일천이백만원 지원받는 '건강한 가족' 가가호호 행복만들기 사업은 자녀가 있는 지적장애인 모 가정에 대상으로 모의 양육능력향상, 자녀의 성장발달지원, 가족의 지원체계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지원 결정된(일천사백만원) '모이고 찾아가 금융지수 올리고', 행복지수 올리고/사업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1:1코칭을 진행하며 건전한 가계금융 관련 지식 습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청공연단, 신세계병원 위문

김제시청공연단(단장 황배연 안전개발국장)은 지난 24일 김제 신세계병원을 6 회째 방문해 환우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 '나누며, 즐기며, 소용하는 위문공연'을 펼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날 하모니카 연주, 통기타 공연, 트로트, 댄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환우들에게 선물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매주 2회씩 연습을 진행하였고, 음악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성숙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선보여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공원 등 비상벨 설치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6일 공원 등 112곳에 비상벨을 설치한 공중 여차화장실 8개소에 대해 한달을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112 순찰차 신속출동 태세 점검을 위한 FTX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느슨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분위기를 제압하므로 연말연시 범죄가 인접을 확보하고 뺑이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FTX는 범죄예방단체인 설치장소를 임의로 선택 후 경찰서 신고접수부터 순찰차 출동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점검했으며, 특히 실제상황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범인검거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황대규 서장은 '연말연시 밤거리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FTX를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주민들 또한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부안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간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이 내년 1월 13일까지 펼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공공이용시설(대형마트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관광 휴게시설 및 여객시설 등 공공건물과 민원민발지역의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면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되면 1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단속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지평선축제 '최고'

전국 최초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김제지평선축제가 전국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26일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축제에 대해 현장 평가와 두 번에 걸친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17년 문

화관광 대표축제로 김제지평선축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는 예년과 달리 축제기간 내내 좋지 않는 기상여건으로 시민과 축제관계자를 안타게 했지만, 김제만의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한 기획과 짜임새 있는 테마

마을별 공간 연출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마련해 어느 해 보다도 빛나고 성공적인 축제로서 시민, 관광객, 전문가 등에게 호평을 받아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된 제 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은 김제시민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에 맞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글로벌 대동 한마당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 19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7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위도면 주민 하나 되어 뜻 이루다

치도 선진자율관리공동체 특별사업 공모 선정... 5억원 확보

부안군 위도면 치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어 공동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치도 공동체는 기존 노후화된 김 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치도 어업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위도 섬 바지락, 굴, 김에 대한 가공설비, 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갖춘 현대식 수산물 가공공장기반 시설을 갖추고 내년 12월부터 공동체 직접생산과 전국 판매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63가구 1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어업공동체로서 바지락, 가무락, 굴, 김 생산을 주 품목으로 부자 어촌 공동체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고 있는 선진 어업공동체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지난 10월 25 사업계획 신청에서부터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통하여 지난 23일 지원대상 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현장심사에서는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유치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발표심사 전까지 송기철 어촌계장의 남다른 준비 노력과 열정과 부안군 해양수산과 사업유치를 위한 치도 마을 주민과 소공동 행정 실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치도 마을 공동체는 사업 유치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마을주민들이 하나 되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시정업무추진 최우수분야 기관표창

김제시는 올 한해동안 각분야에서 시정업무 추진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실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시청 현관에 현판식을 가졌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며, 생활민원불편 현장처리 복지기동대 운영 등의 지원

봉사를 실시한 점들이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장 대통령기표창을 수여 받았다.

또한 "식량생산 안정을 위하여 농업 총생산액 1조원 달성과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000호 육성 등 부강한 농촌·농업생명수도 김제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헌신의 노력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하는 2016년 농산식품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게 됐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앞으로도 새민국의 중심도시 김제가 세계로 뻗어가는 김제로 만들기 위해 헌신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무원과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나눔과 봉사에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AI 추가 발생 예방 '총력'

광역 방제기 총동원 일제소독

고병원성 AI 발생 기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먼저 순정축협 경제사업 본부와 황도현 농협, 농협전북본부, 영농 법인체와 민관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광역 방제기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에 나선다. 광역 방제기 보유 현황을 보면 정읍시 1대와 농협전북본부 1대, 황도현농협 1대, 영농법인체 9대 모두 12대이고, 민간 업체에서

살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총동원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철새가 AI감염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철새가 집중 서식하고 있는 고부천과 동진강 주변 농토와 논밭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는 9개소의 거점 소독시설과 9개소의 발생 농장 통제소에 정읍시 전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인의 합동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철야 가능하고 있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산림사업 우수기관 표창 전수

김생기 시장이 최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2016년도 산림사업 2개 분야 우수기관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김 시장은 임도 시설과 숲 가꾸기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월 산림청에서 주최한 '2016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우수시로 선정됐다. 대회에는 전국 26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응모했고, 이중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 4곳과 지방 산림청 4곳 등 총 8개 기관

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집중 산림경영과 재해에 강한 임도개설' 사례를 발표해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았다.

임도시설은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든 산림 내 작업 도로이다. 산림복합 경영과 산불예방, 마을 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각종 산림 레포츠에도 활용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21일 전북도가 주관한 숲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a map of the region.